

'소통왕' 유재석 '꼰대' 이경규 새 예능 통할까



유재석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유재석
조잘미 뽀내며 시민과의 소통 성공적
엠넷 '더 꼰대 라이브' 이경규
강한 입담으로 자연스런 토크 강점

했다. 시민에 친근한 이미지를 자랑하는 유재석과 보조를 맞추는 조세호의 합이 보기 좋다는 평이다.

유재석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일 유재석의 tvN 진출과 관련해 "스튜디오가 아닌 길거리 토크쇼라는 점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다는 점 등이 흥미롭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웃음이 아닌 돌발 상황에서 발생하는 웃음도 색다른 시청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규 역시 9월 말 방송을 앞둔 '더 꼰대 라이브'를 통해 엠넷에 데뷔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채널A '도시어부', JTBC '한끼줍쇼' 등 비교적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예능을 시도한 이경규에게는 하지만 10~20대 시청자가 주로 분포한 엠넷에서의 출연은 방송가에서도 눈길을 끈다.

프로그램은 '꼰대'란 단어가 포함된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그동안 '버럭' 하는 성격을 유머와 결집해 자주 드러낸 이경규의 기존 이미지를 살리면서도 동시에 반전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각자의 '꼰대' 기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토크를 나누는 포맷으로, 입담에 강하면서도 여러 출연자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이경규에게 최적화된 예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0대를 대표하는 래퍼 김하은, 20대인 뉴이스트W의 렌, 30대인 모델 한혜진과 방송작가 겸 코미디언 유병재가 함께할 예정이라 '새로운 조합'도 기대해볼 수 있다.

프로그램 연출을 맡은 조옥형 PD는 통화에서 "이경규 씨는 막연하게 '꼰대' 이미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막상 보니 스스로 장벽을 깨는 젊은 감각을 가진 분이셨다"며 "프로그램 자체가 안 좋은 이미지로 비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신선하게 봐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통 관록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성공담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경규 씨는 성공담뿐만 아니라 실패담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냉정하게 말씀하신다"며 "입지 않은 '꼰대'의 새로운 타입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이경규



수십 년 지상파를 무대로 활동해온 개그맨 유재석(46)과 이경규(58)가 각각 비지상파의 새로운 채널에 도전해 눈길을 끈다.

유재석은 tvN 수요일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통해 처음 tvN과 손을 잡았다.

유재석은 13년을 이끈 MBC TV '무한도전'을 비롯해 KBS 2TV '해피투게더', SBS TV '런닝맨' 등 주로 장수 프로그램들의 진행을 맡아왔다. 이밖에 JTBC '슈가맨' 등에서도 모습을 비쳤지만 올해 '무한도전'이 대장정의 막을 내리면 서 유재석의 도전은 좀 더 과감해졌다.

안정적인 장수 프로그램 MC를 넘어 리스크를 견뎌낸 새로운 시도에도 몸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시기에 놓인 덕분으로 보인다.

유재석은 '제3의 플랫폼'인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기업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예능 '별안은 바로 너!'에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tvN의 실험적인 예능에도 발을 들였다.

지난 29일 처음 선보인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무한도전' 말미 호흡을 맞춘 조세호와 함께했다. 일반 시민과의 소통 능력, 그리고 순발력이 있어야 하는 길거리 토크쇼는 유재석의 장기를 가장 잘 살린 포맷으로 기대를 모았다.

첫 방송부터 심야 방송에도 2.3% 안정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는 데도 성공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시청률도 '금'

연장전 실시간 시청률 63.78%

남자야구 결승전은 21.23% 기록

1일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 경기인 한일전 중 연장전의 실시간 시청률이 63.78%로 집계됐다.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은 이날 밤 10시 25분부터 11시 43분까지 지상파 3사가 중계한 한일전의 연장전 실시간 시청률의 합이 63.78%를 기록했다. 금메달을 결정할 두 골이 연장전에 집중된 덕분이었다.

채널별로는 MBC TV가 32.33%로 가장 높았고 KBS 2TV가 17.65%, SBS TV가 13.80%로 뒤를 이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대표팀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치비논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속적' 일본 U-21 대표팀과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연장 전반 이승우(엘라스 베로나)와 황희찬(함부르크)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2-1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얻었다.

한편 1일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남자야구 결승전인 한일전 실시간 시청률이 21.23%로 집계됐다.

실시간 시청률조사회사 ATAM은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 20분까지 지상파 3사가 중계한 남자야구 결승전 실시간 시청률 합이 21.23%로 나타났다. 채널별로는 SBS TV가 9.05%로 가장 높았고 MBC TV가 7.23%, KBS 2TV가 4.95%를 기록했다.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겐로라 봉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3-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북한 결핵병원에 가다

MBC스페셜 '6개월 후 만남시다' 오늘 방영

MBC TV 'MBC스페셜'은 그동안 꾸준히 북한을 방문한 국제 봉사단체 이야기를 담은 '6개월 후 만남시다: 북한 결핵병원 이야기'를 오늘 밤 11시 10분 방송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단체는 북한 의사와 함께 다제내성 결핵이라는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린 북한 결핵 환자들을 돕는다. 이 병은 2가지 이상의 항결핵 약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으로 치료 기간도 길고 치료 성공률도 높지 않다.

한국계 미국 국적 다큐멘터리 감독 석예인은 이 봉사 단체와 동행해 북한의 결핵 수용소를 장기간 촬영해 '아웃 오브 브레스'(OUT OF BREATH)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이 작품은 일본 NHK월드에서 방송됐고, 영국 BBC에서도 방송될 예정이다. MBC는 '방송의 날 특집'으로 이 다큐멘터리 한국어판을 방송한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탈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사생결단 로맨스(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크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	00 러블리 호러블리(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최충우돌 만국 유망기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특 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빛고를 행복아카데미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55 닥터 365
2	50 전라도 매력청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재)	10 2018 청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10m 공기소총 여자 외)	00 뉴스브리핑
3	40 공감다큐, 사람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사이닝스타 50 뽀뽀모 도야야 놀자	00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비밀과 거짓말(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5 MBC 뉴스 10 방송의 날 특집 시청자가 주인공이다 1~2부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00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재)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루기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세보자들	55 최충우돌 만국 유망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러블리 호러블리	00 사생결단 로맨스	00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1	00 KBS 뉴스라인 40 한국방송대상 수상작 순례	10 안녕하세요	10 방송의 날 특집 MBC 스페셜 (6개월 후 만남시다)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이웃집 찰스(재)	35 영상앨범 산(재)	10 시간(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6:45 덩동덩 유치원1~2(재)
05:30 세계기록 아틀라스 <오상진의 베트남 피싱로드 1부 바다의 사람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육회물회>	17:15 마사와 곰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몬카트
07:30 띠띠뽀 띠띠뽀	13:00 다크 오늘	19:30 EBS 뉴스
08:00 덩동덩 유치원1~2	13:10 고양이를 부탁해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30 고고다이나모 공룡탐험대	13:40 배워서 남줄림(재)	20:40 세계테마기행 <섬섬옥수 필리핀 1부 즐거운 섬 생활>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4:30 몬카트(재)	21:30 한국기행 <백기행 1부 밥심, 먹어보겠습니다>
09:00 뽀뽀뽀 뽀로로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50 EBS 다크프라임 <위대한 로마 1부 황제들의 정치무대 - 콜로세움>
09:15 뽀로로와 노래해요	15:15 파프리카	22: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6:15 똑딱딱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3일 (음 7월 24일 戊戌)

<p>子</p> <p>36년생 지금의 판도가 무망해졌다. 48년생 모두가 돈과 결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60년생 상호연관 관계까지 감안함이 나올 것이다. 72년생 이동수나 매매운이 원활해졌다. 84년생 길성이 왕성해지고 있으니 팔하 이루어라. 행운의 숫자 : 46, 43</p>	<p>午</p> <p>42년생 과유불급이라 하였으니 절대적으로 무리가 따르지 않게 하라. 54년생 확실히 펼쳐야 할 도량이다. 66년생 막혀왔던 물꼬가 트이리라. 78년생 표기가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탈이 없다. 90년생 체면 차리지 말고 단호하게 말해야 할 때이니라. 행운의 숫자 : 83, 34</p>
<p>丑</p> <p>37년생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는 법이다. 49년생 마음이 설레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61년생 미련을 버려야 결단을 내릴 수 있다. 73년생 결가지는 차치하고 핵심 위주로 다루는 것이 현명하다. 85년생 완성을 염두에 뒤야겠다. 행운의 숫자 : 63, 58</p>	<p>未</p> <p>43년생 식견이 풍부한 이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옳다. 55년생 기운은 길하니 실행하는 일만 남아 있다. 67년생 없어도 있는 것 같고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다. 79년생 불면하다면 버려라. 91년생 대세에 따름이 백년 나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5, 60</p>
<p>寅</p> <p>38년생 과감하게 시도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50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차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62년생 생 인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낫다. 74년생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86년생 크고 작은 변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기운이니라. 행운의 숫자 : 57, 48</p>	<p>申</p> <p>44년생 구태의연한 과정을 해소할 대안이 절실하다. 56년생 다 지나 간 것으로만 여겨왔던 옛일을 문체 삼을 수도 있었다. 68년생 적기에 적용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80년생 일반적인 방법의 채택이 무난하다. 92년생 경험자의 충고에 귀 기울여라. 행운의 숫자 : 60, 72</p>
<p>卯</p> <p>39년생 바탕이 튼실해야 진행에 차질이 없으리라. 51년생 겸손함과 겸소함 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63년생 지속가능해야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75년생 아무리 궁리해 봐도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87년생 속단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6, 51</p>	<p>酉</p> <p>45년생 난관을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느니라. 57년생 제대로 끊어치를 하게 될 것이다. 69년생 마지막에 극적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81년생 근처에 있는 사람이 키를 가지고 있다. 93년생 숨이 막힐 정도로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기리라. 행운의 숫자 : 80, 40</p>
<p>辰</p> <p>40년생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결과는 매 한 가지이다. 52년생 끼어들면 시비 수에 휘말린다. 64년생 임시방편 적이라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76년생 본인의 뜻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88년생 지속 시간이 길수록 효과가 커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18</p>	<p>戌</p> <p>34년생 자신의 길만 묵묵히 진행하고 있으면 된다. 46년생 만만하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느니라. 58년생 판단이 섰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70년생 내심에서 내키지 않으면 수용할 필요가 없느니라. 82년생 반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0, 08</p>
<p>巳</p> <p>41년생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53년생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65년생 중심에서 바깥으로 뻗어 나가는 구도이다. 77년생 의도적인 술수가 보인다. 89년생 순발력 있게 적응해야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2, 67</p>	<p>亥</p> <p>35년생 가볍게 주고받는 말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47년생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다. 59년생 임박하였으니 확실한 준비 태세를 취해야겠다. 71년생 한계를 벗어난다면 중차대한 단거들이 발생할 수 있다. 83년생 다 듣고 나면 전모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0, 83</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화영" ☎010-9790-8237